

## Keats 시의 비극 지향성

—5편의 Ode 를 중심으로—

이 영 숙

영어영문학과

(1983. 9. 30 접수)

### <요 약>

Keats의 편지는 Keats시의 주제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를 알려준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Keats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고통으로 가득찬 비극적인 우리 삶이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를 파악코저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극화를 통해 주제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비개성적인 시, 드라마토저의 시를 지향했다. 그의 이 두 목표가 실현될 때 시는 비극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비극이란 비극적인 세계상을 초극할 수 있는 초월적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eats는 궁극적으로 비극을 지향한 시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Keats의 대표작인 5편의 Ode는 이 결론을 입증하고 있다. "Ode to Psyche"에서 Keats는 상상력이 궁극적인 진리를 포착할 능력이 있다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상상력의 기능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상상력의 힘으로 이 삶이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Ode on Melancholy"는 Keats가 초극의 대상으로 삼은 유한한 삶의 비극성을 제시하며 "Ode to a Nightingale"과 "Ode on a Grecian Urn"은 이 비극적인 세계상으로 휴머니스트인 Keats가 겪는 고뇌와 갈등을 부각시킨다. 비극적인 세계상과 이로 인한 Keats의 고뇌와 갈등이 강조되는 세 편의 시는 그의 이상인 극화된 시에 가까워지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점점적으로 토로하는 진솔의 시에 접근한다. 삶의 비극적인 실패는 파악했으나 이를 해결할 초월적인 원리를 발견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 제재가 되는 삶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To Autumn"에 이르러 Keats는 비극적인 세계상을 초극하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초월적인 원리는 삶의 모든 현상이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다는 세계관으로, 이것은 죽음을 영원히 계속되는 우주의 삶과 죽음의 한 단계로 파악하여 죽음을 수용한 결과이다. 비극적인 삶의 고뇌를 극복할 수 있게 된 Keats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제재를 다루며, 극화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의 이상인 비개성적인 시를 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주제와 형식상의 목표가 모두 실현된 "To Autumn"은 비극의 특성을 지니는 시가 되며, Keats의 시가 궁극적으로 비극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 Keats's Poetic Goal: Tragedy

Lee, Young-Sook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September 30, 1983)

### <Abstract>

Keats's letters show his thematic and artistic purposes: as an intense lover of "here and now," he decided to explore through the imagination into the ultimate reality of our tragic life to give it meaning; and unlike other Romantic poets, he, shunning self-expression, wished to write the

most objective form of poetry, poetic drama. These goals lead up to the conclusion that his poetic goal turned towards tragedy; because tragedy is a force for life affirmation through suggesting the principle of moral or spiritual transcendence which can absorb the tragic vision.

Keats's 5 great odes of 1819 attest to this conclusion. In "Ode to Psyche," Keats suggests a solution that his thematic goal of life affirmation can be achieved by the imagination through extolling the epistemological importance of the imagination that only it can grasp the ultimate reality. His understanding of ironic mutability of life which he tried to overcome is given clear expression in "Ode on Melancholy"; "Ode to a Nightingale" and "Ode on a Grecian Urn" convey Keats's suffering from this tragic vision and emphasize it by showing his conflict between his love of the human and his desire to escape it. He was now in the state that he just understood the burden of mortality without any principle to redeem his agony. Which explains why these three poems are away from his artistic goal, the theme stated explicitly with his strong uncontrolled voice; he couldn't deal with his subject, that is, life objectively unless he conquered his tragic vision. In "To Autumn", we finally find an achievement of his poetic goal. He overcomes limitations of our earthly life by firmly accepting the mutability: seeing death as one process of eternal cycle of death and rebirth, he accepts life as it is with the conviction of "the principle of beauty in all things." Because of this thematic achievement his artistic goal can be fulfilled: the theme inheres in the subject with the poet adding no explanation or definitions: his poem finally arrives at drama. With his poetic goal attained, "To Autumn" can be read as tragedy, through which we can be sure that Keats's poetic goal is to write tragedies.

## I. 편지를 통해 본 Keats시의 흐름

—비극을 향하여—

낭만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Bowra도 지적했듯<sup>(1)</sup> 상상력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낭만주의 시인들의 이와같은 시도는 18세기의 인식론과 합리주의자들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패격한 결과였다. 당시의 과학적 합리주의는 세계를 거대한 기계로 파악하며 세계의 의미를 찾기 보다는 가시적인 세계와 현상의 설명에 주력했다. 그런데 이와같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사람의 정신능력을 극히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삼았다. Locke로 대변되는 이 인식론에 의하면 지식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며 사람의 정신이란 다만 외부로부터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용기에 불과하다; 연상작용에 의해 관념은 형성하고 추론을 할 수는 있으나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란 극히 미미한 것이다. Locke와 Samuel Johnson이 강조한 이와같은 기계론적인 인식론은 시를 연상작용에 의해 관념을 연결시키는 능력, 곧 'wit'의 문제로 파악했으며, 특히 Locke는 'wit'를 진리나 궁극적 실체같은 문제와는 무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지음으로써<sup>(2)</sup> 시를 인간의 삶과 유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가시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없어 삶의 의미를 제시할 수 없는 기계론적인 철학과 시를 삶과 세계의 실체와는 유리된 것으로 만드는 인식론에 대항하여 낭만주의 시인들은 세계와 인간의 삶과 시에 다 같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인간의 정신이 인식에 있어 대단히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간의 정신에 무한한 능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인식론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시인이었던 그들은 상상력을 인간정신의 핵으로 보고 인식에 있어 특히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들은 상상력이란 단순히 이미지나 관념을 분류, 혹은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실체 즉 신리를 파악하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1) C. M. Bowra, *The Romantic Imagination*(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 1.

(2) *Ibid.*, p. 3.

이렇게 상상력과 궁극적 진리를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주의자들의 세계에 대한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표면상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무질서한 세계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며 시가 삶과 세계의 궁극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미있는 것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힘으로서의 감각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Keats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상상력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문학과 세계상을 제시한 낭만주의 시인의 한 사람임은, 그의 점차 발전해 나가는 문학과 인생관의 기록인 편지에서 잘 밝혀진다. 먼저 상상력에 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는 편지의 이곳저곳에 드러나 있으나 특히 1817년 11월 22일, Benjamin Bailey에게 보낸 편지에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Keats는 이 편지에서 궁극적 진리란 과학적 사고를 증시하는 합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논리적 추론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I have never yet been able to perceive how any thing can be known for truth by consequitive reasoning”——상상력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힘은 강한 감정(“passion”)임으로 인간의 감정(“Heart's affections”)이란 성스러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I am certain of nothing but of the holiness of the Heart's affections and the truth of Imagination——What the imagination seizes as Beauty must be truth——whether it existed before or not——for I have the same Idea of all our Passions as of Love: they are all in their sublime, creative of essential Beauty. (3)

“O for a life of Sensations rather than of Thoughts!”(p.274)란 그의 기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때 “sensations”란 표현은 D'Avanzo의 지적대로 정서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4);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듯 Keats는 단순히 감각적인 것만을 선호하는 시인이 아니다. 이렇게 Keats는 이 편지에서 진리의 직관적인 포착과정——감각적 경험이 강한 감정을 유발하며 이 감정이 다시 상상력을 작동시켜 미이자 곧 진리를 포착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상상력과 궁극적 진리를 관련시킨 낭만주의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

상상력만이 궁극적 진리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은 Keats는 이 상상력을 이용하여 특히 삶의 궁극적 실체를 밝히는 일에 주력했다. 이는 Keats의 관심이 삶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Benjamin Bailey에게 보낸 편지에서 Keats는 인간의 내세의 행복은 그가 지상에서 누린 행복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we shall enjoy ourselves here after by having what we called happiness on Earth repeated in a finer tone and so repeated. (p.274)

내세를 논하더라도 내세보다는 오히려 현세를 더 강조할 정도로 지상의 삶을 강조한 Keats였다. 그에게는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해마지 않는 행복도 순간순간의 현실의 삶과 연관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었고 직접적인 삶의 행위가 가뜨치는 것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I look not for it[happiness] if it be not in the present hour——nothing startles me beyond the moment. (p.275)

Nothing ever becomes real till it is experienced——Even a Proverb is no proverb to you till your Life has illustrated it. (pp.363—64).

이렇게 현실의 삶 그 자체와 직접적인 삶의 행위를 중시한 Keats가 상상력을 통한 삶의 궁극적 실체 파악에 주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Keats의 삶에 대한 인식은 삶이란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라는 것이다. Wordsworth의 시인으로서의 성

(3) J. B. Keats, *The Poetical Works of Keats*, ed. Paul D. Sheats(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274. Keats의 편지는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발호인에 page 숫자만 언급하겠음.

(4) “By ‘sensations’ it would seem Keats means both the emotional experience and intense sensory experience.” Mario L. D'Avanzo, *Keats's Metaphors for the Poetic Imagination*(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67), p.10.

장과정파 위대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Keats는 사람이란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삶과 인간의 실상을 인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곧 고통과 미참함으로 가득찬 것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다:

—One's vision into the heart and nature of Man—of convincing ones nerves that the World is full of Misery and Heartbreak, Pain, Sickness and oppression. (p.302)

삶이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라는 Keats의 인식은 무엇보다도 삶이 변전무상하며 유한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This is the world—thus we cannot expect to give way many hours to pleasure—Circumstances are like Clouds! continually gathering and bursting—While we are laughing the seed of some trouble is put into the wide arable land of events —while we are laughing it sprouts is grows and suddenly bears a poison fruit which we must pluck. (p.362)

Keats는 삶의 일회성으로 인한 비극성을 어둠의 은유로써 표현하며 사람이 한번 삶의 본질을 알아차리던 그 순간 이후의 삶은 어둠으로만 이어질 뿐 삶의 고뇌가 던지는 무게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whereby This Chamber of Maiden Thought becomes gradually darken'd and at the same time on all sides of it many doors are set open—but all dark— all leading to dark passages—We see not the ballance of good and evil. We are in a Mist —We are now in that state—We feel the “burden of the Mystery”.(p.302)

Keats는 Wordsworth가 위대한 시인인 이유는 그가 비극적인 삶을 탐구하여 그 궁극적 실체를 밝힘으로써 삶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Wordsworth가 비극적인 어둠의 현실에 빛을 던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it seems to me that his Genius is explorative of those dark Passages. Now if we live, and go on thinking, we too shall explore them. he is a Genius and superior [to] us, in so far as he can, more than we, make discoveries, and shed a light in them. (p.302)

위대한 시의 본질을 Wordsworth를 통해 밝힌 Keats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복표를 상상력의 힘으로 삶의 궁극적 실체를 밝혀 삶의 비극성을 초극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하는 것에 두게 된다.

Keats의 편지는 그가 발견한 삶의 궁극적 실체에 관해서도 알려준다. 그것은 Murry가 Keats의 이상적인 시의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sup>(5)</sup> “만물이 모두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는 원리(the principle of beauty in all things)”이다. 그가 편지에 즐겨 썼으며 특히 1820년 2월에 Fanny Brawne에게 보낸 편지 귀절(p.428)로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 말은 Murry의 해석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It involves a profound acceptance of life as it is, a passing beyond all rebellion, not into the apathy of stoic resignation, but into a condition of soul to which the sum of things—“foul or fair, high or low, rich or poor”—is revealed as necessary and true and beautiful.<sup>(6)</sup>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Keats의 이 원리는 삶을 어렵게 만드는 고통과 악조차도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는 삶의 아름다운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통과 악의 존재이유를 밝힌 유명한 Soul-Making Letter는 Keats의 이런 수용적인 삶의 태도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편지이다. Keats는 이 편지에서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영혼을 소유해야 하는데 고통과 고뇌가 사람에게 바로 이 영혼을 소유하게 만든다고 적고 있다:

Do you not see how necessary a World of Pains and troubles is to school an Intelligence and make it a soul? A Place where the heart must feel and suffer in a thousand diverse ways!

(5) John Middleton Murry, *Keats and Shakespeare: A Study of Keats' Poetic Life From 1816 to 1820*(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p.71.

(6) *Ibid.*, p.75.

Not merely is the Heart a Hornbook, It is the Minds Bible, it is the Minds Experience, it is the teat from which the Mind or intelligence sucks its identity. (p.370)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슬픔과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神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련하에서 이를 극복하지도 않고, 삶 자체 속에서 그 가치와 존재이유를 찾아내는 Keats의 이런 태도는 현실의 삶 그 자체와 직접적인 삶의 행위를 증명한 휴메니스트로서의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다. 편지의 이곳저곳에서 神과 영생을 부정하며 현실의 삶을 증명한 그가 포착한 삶의 궁극적 실체는 이렇게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나뉠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따라서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는 것이었다.

비극적인 삶의 궁극적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Keats의 시인으로서의 목표는 Keats가 지향하는 시의 형식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데에 한 몫을 담당케 된다. Keats는 그의 유명한 ‘Negative Capability’ 이론과 편지의 여러 부분을 통해 자신이 지향한 시의 형식을 밝혔다. 그중 1818년 10월 27일, Richard Woodhouse에게 보낸 편지는 특히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

As to the poetical Character itself, (I mean that sort of which, if I am any thing, I am a Member; that sort distinguished from the Wordsworthian or egotistical sublime; which is a thing per se and stands alone) it is not itself—it has no self—it is every thing and nothing—it has no character—it enjoys light and shade; it lives in gusto, be it foul or fair, high or low, rich or poor, mean or elevated—it has as much delight in conceiving an Iago as an Imogen. What shocks the virtuous philosopher, delights the camelion Poet. It does no harm from its relish of the dark side of things any more than from its taste for the bright one; because they both end in speculation. A Poet is the most unpoetical of any thing in existence; because he has no Identity—he is continually in for—and filling some other body. (pp. 336—37)

Keats는 시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Wordsworth를 위시한 다른 낭만주의 시인과는 달리 반낭만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시인의 개성과 자아가 강하게 표출되는 주관적인 시를 반대하며 시의 제재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비개성적인 시를 쓰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시인의 세계관이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진술의 시가 아닌 삶의 여러 상황이 극화되며 제시되는 객관적인 시를 지향했다: 곧 드라마로서의 시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1818년 1월 30일, John Taylor에게 보낸 편지에서 *Endymion*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이 작품이 그의 “드라마를 향한 본격적인 시도의 첫 걸음(my first step towards the chief attempt in the drama)”(p.285)이라고 밝혔듯 Keats는 Shakespeare와 같이 비개성적인 시를 쓰기 위해 객관성이 최대로 보장되는 극화된 시(poetic drama)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그가 주관적인 서정시보다는 장시를 주로 썼으며 ode와 같은 서정시를 썼다 해도 그것이 Byron이나 Shelley의 작품과는 달리 비개성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은 것은 모두 그의 이런 태도에 연유하는 것이다.

드라마를 지향하는 Keats의 형식적인 목표와 삶의 실체를 밝히려는 주제상의 목표가 만날 때 그의 시는 궁극적으로 비극을 향해 나가게 된다. 비극이란 비극적인 세계관을 초극할 수 있는 초월적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수립하며 삶과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제시하는 것이다.<sup>(7)</sup> Keats는 우리들의 현실이 비극적임을 파악했을 때 이런 삶의 실체를 추구하여 비극적인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나뉠대로의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하려 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괴로움을 구원하며 무의미한 인생에 식구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Keats가 인지한 비극적인 세계상과 이를 초극할 수 있는 초월적인 원리가 한 작품 속에 구현될 때 객관성을 추구하여 드라마를 지향하는 그의 시는 자연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비극으로 나아

(7) 비극에 관한 논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비극과 비극적 세계관 사이에 유용한 구분을 실정한 사람은 Murray Krieger이다. 그는 문학작품으로서의 비극과, 그 비극이라는 작품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인공의 심리, 혹은 현실에 대한 입장이나 해석으로서의 비극적 세계관을 구분지었다. 그리하여 Krieger는 초월적 원리의 제시로 새로운 세계를 수립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긍정을 유도한다는 일반적인 비극의 정의를, 비극적 세계관에 대한, 이를 포함하고 있는 완결된 작품 곧 비극의 형태상의 혹은 주제상의 초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비극관을 토대로 Krieger는 키에르케고르와 니이체에 출발점을 둔 현대적 정황이 만들어 내는 비극의 성격을 회극보다는 소설에서 찾아낸 무형의 비극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Krieger의 이 논의는 시를 쓰면서 드라마를 지향한 Keats의 작품을 분석하는 필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Krieger의 논의는, Murray Krieger, *The Tragic Vision: The Confrontation of Extremity*(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0), pp. 1—21 참조.

가게 된다. Keats가 자신의 문학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특별히 비극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자신은 비극으로서의 시를 지향한다고 밝힌 일은 없지만 그의 주제와 형식상의 목표를 고찰할 때 그의 편지는 Keats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시는 비극에 접근하는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本稿는 Keats의 편지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Keats시의 궁극적인 흐름, 즉 비극을 향한 흐름을 그의 시 작품 속에서 직접 밝혀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그의 작품 중 명실공히 그의 가장 뛰어난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5편의 Ode를 선택했다. Keats의 짧은 생애중 경이적인 해로 받아 들여지는 1819년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Ode to Psyche”, “Ode on Melancholy”, “Ode to a Nightingale”, “Ode on a Grecian Urn”, “To Autumn” 등 5편의 Ode 속에서 편지에 드러난 그의 상상력에 대한 입장, 현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유메니스트인 그에게 삶이 던져준 고뇌와 갈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고찰하며, Keats의 작품은 그의 편지가 암시하는대로 궁극적으로는 비극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Ode to Psyche”

“Ode to Psyche”는 2세기의 로마인인 Apuleius가 전하는 Psyche와 Cupid의 사랑에 관한 신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시이다. 4인조로 이뤄진 이 시의 포넨적인 구조는 Keats가 Psyche에게 바치는 짧은 기원(invocation)과 Keats가 포착한 Psyche와 Cupid의 비전에 대한 묘사, 그리고 Psyche가 너무 뒤늦게 神이 되었으므로 회람사람들의 숭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Keats의 안타까움의 토로와 자신이 그녀를 위해 마음 속에 그녀를 위한 사원을 짓겠다는 Keats의 결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 포넨적인 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비평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가한 바 있는데, 이 의미의 이해, 곧 시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Psyche와 Cupid의 상징적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회람어로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의미의 Psyche와 사랑의 神 Cupid의 결합은 전통적으로 정신과 감정,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의 합일을 의미하는데 이 시에서 Keats는 특히 상상력과 감성의 결합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진다.<sup>(8)</sup> 이 해석은 뒷받침될 수 있는 시행으로는 41~43행을 들 수 있다. 여기서 Keats는 Psyche의 모습(빛나는 날개)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어 시를 쓸 수 있게 한다고 적고 있다:

……thy lucent fans  
Fluttering among the faint Olympians,  
I see and sing, by my own eyes inspired. (ll. 41--43)

시인으로 하여금 영감을 느껴 평상시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비전을 포착하며 시를 쓰도록 만드는 힘이 상상력이라고 보는 입장은 Keats를 위시한 낭만주의 시인들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Keats에게 시를 쓰게 만드는 Psyche는 상상력의 상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50행——“Yes, I will be thy priest, and build a fane”——을 Shelley에게 보낸 편지의 한 귀절——“My Imagination is a Monastery and I am its Monk”(p. 443)——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이 해석은 더욱 확실시 될 수 있다.

Psyche가 상상력의 상징이라던 Cupid는 인간 감정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Keats는 상상력의 존재와 기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보았다. 상상력을 촉발시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임으로 감정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힌 Benjamin Bailoy에게 보낸 편지와 “Ode to Psyche”를 동봉한 유명한 Soul-Making Letter의 다음 귀절이 Keats의 이와 같은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Not merely is the Heart a Hornbook, It is the Minds Bible, it is the Minds Experience, it is the teat from which the Mind or intelligence sucks its identity. (p. 370)

따라서 상상력으로서의 Psyche의 존재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인간감정의 구현으로서의 Cupid와의

(8) Psyche를 상상력의 상징으로 보며 “Ode to Psyche”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가하고 있는 사람은 Mario L. D'Avanzo이다. Mario L. D'Avanzo, *op. cit.*, pp. 202-14 참조.

결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 1련에서 짧은 기원에 이어 펼쳐지는 Keats가 포착한 비전의 묘사는 Psyche와 Cupid의 결합이, 다시 말해, 상상력과 감정의 결합이 빚어내는 결과를 알려준다.

They lay calm-breathing on the bedded grass;  
 Their arms embraced, and their pinions too;  
 Their lips touch'd not, but had not bade adieu,  
 As if disjoined by soft-handed slumber,  
 And ready still past kisses to outnumber  
 At tender eye-dawn of aureorean love. (ll. 15—20)

Keats가 포착한 두 연인의 결합된 모습은 키스가 끝난 것도 아니요,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잠든 것도 아니며 깨어있는 것도 아닌 황홀한 순간의 모습이다. Keats 특유의 강렬한 순간에 머물러 있는 그 둘의 사랑은 또한 인용문의 마지막 두 행이 보여주듯 일회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다. Psyche와 Cupid의 결합이 일회적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황홀한 순간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강한 감정과 절묘한 상상력이 가장 이상적인 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Keats의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상상력과 감정이 결합한 이 순간이야 말로 깨어 있는 것도 아니며 잠자는 것도 아닌 인간의 정신이 가장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으로 바로 시인에게 비전을 포착하도록 만드는 강렬한 순간이다. Keats가 Psyche와 Cupid의 비전을 포착한 것도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Surely I dreamt today, or did I see/The winged Psyche with awaken'd eyes?”(ll. 5—6). Psyche와 Cupid가 결합한 내밀한 장소(bower)의 묘사가 공감각적 표현(synaesthesia)을 통해 이뤄져 있음도 비전이 감정과 상상력이 결합된 Keats의 전존재의 파악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각적 표현을 이용해 묘사된 bower image는 시인이 비전을 포착하는 장소를 나타낼 뿐 아니라 시인의 감정과 상상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1련에서 시가 감정과 결합된 상상력의 소산임을 밝힌 Keats는 제 2련과 3련에서 자신의 시대는 옛 회랍인들의 스막한 신앙심과 신앙체계를 상실한 시대임을 한탄하며 당대의 시인들이 옛 사람들과 같은 열정으로 상상력을 숭배하지 않음을 한탄한다. Keats는 그래서 Psyche에게 시를 지어 받침으로써 자신이 Psyche의 사제 역할을 할 것을 결심한다:

So let me thy choir, and make a moan  
 Upon the midnight hours;  
 Thy voice, thy lute, thy pipe, thy incense sweet  
 From swinged censer teeming;  
 Thy shrine, thy grove, thy oracle, thy heat  
 Of pale-mouth'd prophet dreaming. (ll. 44—49)

Keats가 포착한 비전이 이렇게 숭배를 요하는 실계의 인물로 취급받는다는 것은 상상력이 포착한 비전은 곧 美이자 眞이라는 그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Keats는 자신의 상상력의 소산인 Psyche가 다른 회랍 여신들 보다 더욱 아름답다고 직고 있다: “Fairer than Phocbe's sapphire-region'd star, /Or Vesper, amorous glow-worm of the sky.”(ll. 26—27) 41—43행에서 제 1련에 이어 다시 한번 시가 상상력의 소산임을 밝히면서 Keats는 시인에게 美이자 眞이 되는 비전을 포착케 해주는 상상력에 기계론적인 인식론은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Psyche에게 시를 지어 바치는 이유이다.

마지막 원은 비전을 포착한 Keats의 상상력이, 그 비전을 바탕으로 완성된 예술작품으로써의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모습은 제 1련에서 비전으로 포착된, 시를 은유하는 내밀한 장소(bower)를 시인의 마음 속에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working brain”, “Fancy”로 표현되는 시인의 상상력이 시인의 정신이라는 자연공평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일구며 항상 새로운 꽃을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 Keats는 원준한 산의 이미지를 통해 시작과정이란 밝은 노력

을 요하는 힘든 과정이며, 제 1련의 기원 속에 나오는 “sweet enforcement”라는 귀절이 이미 제시했듯 즐거움과 고통을 동시에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밝힌다. 상상력이 늘 새로운 땅을 일구며 결코 똑 같은 꽃을 기르지 않는다는 말은 상상력은 무한히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힘 이라는 뜻이다. 이 상상력의 소산인 시의 필적은 이루는 사고들은 마치 나무에 가지가 생겨나듯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이 Keats의 주장이다.

상상력을 통한 시인의 작고 끝에 만들어진 시를 Keat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And there shall be for thee all soft delight  
That shadowy thought can win,  
A bright torch, and a casement ope at night,  
To let the warm Love in! (ll. 64—67)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shadowy”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D’Avanzo는 NED를 참조하여 “insubstantial,” “phantom”의 의미외에도 “imitative,” “reflective of an image”의 의미로 파악했다. 이 경우 우리는 진리를 반영하는 Plato의 동굴에 비치는 그림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 “shadowy thought”는 궁극적 진리를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9)</sup> “Ode to psyche”가 시인이 포착한 비전은 美이자 眞이라는 전체 하에 쓰여진 것임을 생각할 때 이 해석은 대단히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해석을 따를 때 “shadowy thought”의 소산은 상상력이 포착한 궁극적 진리의 밝은 불빛이 된다. 결국 상상력의 소산인 시속에는 시인이 포착한 궁극적 진리와, 신화를 빌어 표현한 마지막 형이 나타내듯 상상력과 더불어 시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시인의 강한 감정이 용해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Ode to Psyche”는 한 마더로 감정과의 이상적인 결합이 이뤄질 때 궁극적 진리를 포착하며 이상적인 시를 산출할 수 있는 상상력의 능력을 찬양한 시이다. Keats시의 주제상의 목표와 연관시켜 볼 때 이 시가 지니는 의미는, 그가 이와같은 상상력의 찬양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상상력의 힘으로 삶의 실체를 파악하여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 III. “Ode on Melancholy”

“Ode on Melancholy”는 우수의 본질을 그 거처를 밝힘으로써 알리고 있다. 제 1련에서 Keats는 우수의 신봉자들에게 우수란 “nightshade”, “Lethic”, “the downy owl” 등의 어둡고 우울한 매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슬픔이란 슬픔과 반대되는 것 속에서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or shade to shade will come too drowsily, / And drown the wakeful anguish of the soul.”

우수란, 또한, 제 2련이 밝히듯, 4월의 소낙비처럼<sup>(10)</sup> 갑작스레 찾아오는 것이다.

But when the melancholy fit shall fall  
Sudden from heaven like a weeping cloud,  
That fosters the droop-headed flowers all,  
And hides the green hill in an April shroud.... (ll. 11--14)

여기서 우수가 찾아드는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 우수의 직유로 사용된 4월의 소낙비는 蓑衣 이미지를 통해 우수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4월의 소낙비는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며 언덕을 푸르름으로 뒤덮는다. 그러나 이 푸르름은 수의와 다른데 있다; 그것은 만물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한 4월의 비는 곧 죽음을 촉진한 슬픔의 소낙비 (“weeping cloud”)가 되며, 우수는 전혀 우수와는 거리가 먼 듯한 아름다움과 기쁨의 대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9) Mario L D’Avanzo, *op. cit.*, p. 212.

(10) Mayhead는 영국의 4월의 비는 대단히 갑작스레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The reader who has never experienced an April Shower in England should know that such a down pour often comes with remarkable suddenness.” Robin Mayhead, *John Keat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 61.



Then glut thy sorrow on a morning rose,  
 Or on the rainbow of the salt sand-wave,  
 Or on the wealth of globed peonies;  
 Or if thy mistress some rich anger shows,  
 Emprison her soft hand, and let her rave,  
 And feed deep, deep upon her peerless eyes. (ll. 15—20)

마지막 연은 4월의 소낙비라는 직유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던 둘째 연의 수수께끼 같은 역설의 의미를 명백히 한다.

She dwells with Beauty—Beauty that must die;  
 And Joy, whose hand is ever at his lips  
 Bidding adieu; and aching Pleasure nigh,  
 Turning to poison while the bee-mouth sips... (ll. 21—24)

죽음이 필연적인 현상이 되는 무상한 삶에는 영원한 美나,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다. 오히려 아픈다음이나 즐거움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 만큼이나 죽음을 가져오는 시간의 흐름을 깨우쳐 줌으로써 슬픔을 느끼게 만든다. 우수한 결국 즐거움의 필연적인 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y, in the very temple of Delight  
 Veil'd Melancholy has her sovran shrine,  
 Though seen of none save him whose strenuous tongue  
 Can burst Joy's grape against his palate fine,  
 His soul shall taste the sadness of her might,  
 And be among her cloudy trophies hung. (ll. 25—30)

이 마지막 6줄에서 Keats는 특히 미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명확하게 부각시킨다: 삶은 죽음과 무상성이 그 특성이 됨으로 즐거움과 우수가 공존한다는 역설을 가능하게 하며, 열정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수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이 시에서 Keats가 사용한 우수(Melancholy)라는 말의 정의는 Bloom의 지적대로 “무상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consciousness of mutability and death)”이 되며,<sup>(11)</sup> 이것은 한껏 살수록 강하게 감지되는 것이므로 제1련의 “영혼의 잠깐 고통(wakeful anguish of the soul)”이란 표현이 알려주듯 우리의 의식이 둔화된 순간이 아니라 활발한 움직임은 보일 때 얻어지는 인식이다. 우리의 의식이 활발하면 할수록,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 수록 우수의 감정을 느낀다는 Keats의 주장은 그가 삶이 죽음과 무상성에 기초한 비극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삶과 세계의 실상을 감지한 Keats의 삶의 여정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빛과 경이에 가득찬 어린시절의 방을 지나 어둠의 방으로 온 것이다: “This Chamber of Maiden Thought becomes gradually darken'd”(p. 302); 그리고 그는 불가해한 삶의 무게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Ode on Melancholy”는 이러한 성인으로서의 Keats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고뇌를, 비록 그가 극화된 시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곧 재제가 될 정도로 명백한 진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상상력을 소유한 Keats의 목표는 바로 이 비극적인 삶과 세계의 궁극적인 보습을 파악하여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 Ⅳ. “Ode to a Nightingale”

“Ode to a Nightingale”은 “Ode on Melancholy”에서 제시된 삶의 비극성으로 인해 고뇌하는 Keats의 모습을 보여준다. Keats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너도밤나무 숲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취해 행복에 젖는다. 그러나 이 행복은 고통을 수반한 행복이다: “My heart aches,

(11) Harold Bloom,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p. 415.

and a drowsy numbness pains/My sense..." "Ode on Melancholy"에서 자세히 진술되었듯 삶은 어떤 상황에도 영속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지금 Keats가 나이팅게일이 누리는 완전한 기쁨에 동화되어 끝없는 행복을 느끼지만 이것도 필시 사라질 행복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새소리에서 고통어린 기쁨을 느끼는 것이며, 이 지고의 기쁨의 순간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기를 바란다. 제 2연은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순간을 지속시키고 싶은 시인의 열망을 보여주며, 그가 이런 순간에 보다 오래 머무르고 싶어하는 이유를 밝힌다. Keats는 빈전무상한 삶, 생각한다는 것은 곧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는 고통스런 삶을 탈피하고 싶어 한다: "That I might drink, and leave the world unscen,/And with thee fade away into the forest dim."(ll.19-20) 셋째 연은 고통스런 삶의 모습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Keats가 삶에서 느끼는 고뇌와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을 다시 잘 보여준다. 넷째 연에서 Keats는 지상의 삶을 벗어나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도피하는 수단으로 술이 아닌 상상력을 선택한다: "I will fly to thee... on the viewless wings of Poesy." 그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Already with thee"라는 황홀한 외침이 보여주듯,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그의 상상력이 포착한 이상적인 세계는 제 7연까지 이어진다. 제 5연의 감자적인 이미지들은 Psycho와 Cupid의 결합이 이뤄진 곳과 같은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다. 이곳에서 Keats는 나이팅게일과 가장 동화가 잘된 환희의 순간에 다시는 고통스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환희의 순간에 영원토록 머무르기 위해 죽음을 갈망한다:

Now more than ever seems it rich to die,  
To cease upon the midnight with no pain,  
While thou art pouring forth thy soul abroad  
In such an ecstasy!  
Still wouldst thou sing, and I have ears in vain—  
To thy high requiem become a sod.(ll.55--60)

죽음의 동경은 나이팅게일의 세계를 설명하는 제 5연의 "embalmed"에 의해 이미 예시되었던 것인데, 죽음이란 그것이 제아무리 술이나 시보다 완벽한 도피의 수단이라 해도 나이팅게일과의 더 이상의 동화를 허용치 않는다는 일련을 지낸다. 죽음이란 삶의 고통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도 끝장내는 것이다. "and I have ears in vain," become a sod"는 Keats가 죽음의 이런 일련도 상기했음을 알려주는 귀절이다. Keats는 아니러니칼하게도, 상상력의 힘으로 삶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초월한 가장 환희로우 순간에 삶의 여질 수 없는 유한성을 뼈저리게 깨달게 된 것이다.

자신의 삶과 영원한 나이팅게일의 세계와의 차이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제 7연은 형성한다:

Thou wast not born for death, immortal Bird!  
No hungry generations tread thee down;  
The voice I hear this passing night was heard  
In ancient days by emperor and clown:  
Perhaps the self-same song that found a path  
Through the sad heart of Ruth, when, sick for home,  
She stood in tears amid the alien corn;  
The same that oft-times hath  
Charm'd magic casements, opening on the foam  
Of perilous seas, in faery lands forlorn. (ll.61-70)

Keats는 나이팅게일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임을 황제와 농부의 역사시대, Ruth의 성경전설의 시대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욱 먼 전설의 시대로 차츰 시간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제시한다. 자연의 한 생명체에 불과한 나이팅게일을 Keats가 어떤 근거로 영원성의 상징으로 설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평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Hirst의 의견처럼<sup>(12)</sup> 중요한 것은 Keats가 삶의 한계성을 초월하기를 열망한

(12) Wolf Hirst, *John Keats*(Boston: Twayne Publishers, 1981), p.127.

다는 것임으로 그 근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Keats가 이 시에서 단지 목소리만을 언급할 뿐 그에게 노래를 들려준 어느 특정한 나이팅게일에 대한 묘사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새가 있는 장소도 막연하게 "In some melodious plot," "the forest dim"으로 제시하여 우리의 관심을 새 자체보다도 나이팅게일에 대한 시인의 경험으로 이끌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this passing night"가 아닌 영원함과 지고의 기쁨을 특성으로 하는 나이팅게일의 세계는 지상의 삶과는 다른 곳이므로 선경(faery land)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쓸쓸한(forlorn) 곳이다. "forlorn"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나이팅게일의 세계와 Keats의 세계를 분리시키며, Keats로 하여금 나이팅게일의 세계를 떠나 지상의 삶을 누리는 자기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Forlorn! the very word is like a bell/To toll me back from thee to my sole self!"(ll. 71—72) 상상력이 구축한 나이팅게일의 세계로도 피하여 삶의 고뇌와 무상성을 잊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만 것이다: "Adieu! the fancy cannot cheat so well/ As she is fam'd to do, deceiving elf." 이렇게 되자 기쁨에 찬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도 "plaintive anthem"으로 변하게 된다.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는 새가 날아가버림에 따라 사라지고 마는 데, Keats는 노래가 사라지는 모습을 죽음을 언상케 하는 "buried"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마치 다시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을 수 없는 듯이 쓰고 있다.<sup>(13)</sup> 이로 인해 상상력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된다. 상상력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의 노래도 사라지자 Keats는 나이팅게일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환희의 순간이 순간적이나마 진리를 포착케 하는 비전의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몽상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Was it a vision, or a waking dream?/Fled is that music:—Do I wake or sleep?"(pp. 79—80) 두번이나 되풀이되는 질문에서 우리는 상상력이 구축했던 세계에 대한 Keats의 의혹을 읽을 수 있다.

"Ode to Psyche"에서 Keats는 상상력은 美이자 곧 眞을 포착한다는 신념아래 순진히 자신의 상상력의 소산인 Cupid와 Psyche의 존재를 의식치 않으며 상상력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Ode to a Nightingale"에서는 실제의 나이팅게일을 바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포착한 세계는 왜해되며 의혹의 대상이 된다.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것은 "Ode to a Nightingale"에서의 상상력의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도피하기 위해 설정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Keats는 지상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며 고쳐스런 삶이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시적과정으로 설정한 시인이다. 이런 Keats가 상상력의 힘으로 삶을 직시하며 그 의미란 찾기보다는 삶을 도피하려 할 때 상상력이 구축한 세계가 붕괴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아무리 나이팅게일의 세계에 동화되며 그 세계의 영원성을 찬양한다 해도, 삶을 회피하는 한 삶이 지니는 한계는 극복되지 못한다. Keats의 고뇌가 해결될 수 없다면 상상력의 세계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삶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상력의 힘을 빌 때 상상력의 세계는 자인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계가 된다. "forlorn"이라는 말이 Keats를 지상의 세계로 되돌리듯 Keats는 지상의 세계를 부정한 세계, 인간적인 것이 결여된 세계를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상상력의 세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적인 세계의 왜해로 시는 전체적으로 현실에서 상상력의 세계로, 상상력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흐름을 지니게 된다. 이 흐름을 통해 시는 삶의 비극성으로 인한 Keats의 고뇌와, 삶을 회피하고 싶은 정도로 고뇌를 겪으면서도 지상의 삶을 부가치한 것으로 포기하지도 못하는 그의 갈등을 전달한다. Keats는 지금 삶이 인간에게 던지는 고뇌는 파악했으나 아직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고뇌를 제어할 수 없는 Keats는 작가의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재인 삶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비개성적인 시를 쓰지 못한다. 그 결과 "Ode to a Nightingale"은 그의 이상인 극화된 시에 가까워지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진솔의 시에 접근하고 있다.

(13) David Perkins, *The Quest for Permanence: The Symbolism of Wordsworth, Shelley and Keats*(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255.

## V. "Ode on a Grecian Urn"

"Ode on a Grecian Urn"에서 Keats는 "Ode to a Nightingale"에 이어 다시 한번 더 상상력을 동원해 부상한 삶의 고뇌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 "Ode to a Nightingale"에서 Keats가 나이팅게일은 통해 피안의 세계로 들어갔다던, "Ode on a Grecian Urn"에서는 희랍의 대리석 항아리를 영원한 세계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로 인해 길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항아리는 영원한 세계의 상징으로는 보다 더 튼튼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 항아리에는 니이체가 후에 희랍문화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로 지적한 Dionysus적인 요소와 Apollo적인 요소가 조각되어 있다:<sup>(14)</sup> 둘째, 셋째 연의 남녀간의 사랑과 아름다운 피리소리가 전달해 주는 미칠듯한 환희와 넷째 연의 세사 행렬이 보여주는 밝은 질서감각이 균형잡힌 희랍정신과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항아리의 아름다움에 취한 Keats는 강한 감정이 촉발시킨 상상력의 작용으로 항아리를 통해 지상의 고뇌와는 거리가 먼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 간다. 그가 지상의 삶을 떠나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감에 따라 그의 초점은 전체적인 항아리의 모습에서 항아리의 내부, 즉 항아리에 조각된 인물들을 향해 움직인다. Keats는 그러나, "Ode to a Nightingale"에서 처럼 끝내 피안의 세계에 머무르지 못하고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Keats의 초점이 세부적인 조각에서 다시 항아리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동하는 시의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결국 시는 지상의 삶에서 피안의 영원한 세계로, 피안에서 다시 현실로 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지니게 되는데 Keats는 이 흐름 속에서 현재의 삶과는 철저히 대조적인 상상력의 세계를 설정함으로써 구상한 현재의 모습과 이로 인한 자신의 고뇌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은 모두 "Ode to a Nightingale"과 유사한 점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상상력이 포착한 피안의 세계를 다루는 Keats의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Ode to a Nightingale"의 경우 상상력의 세계는 비록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어 Keats의 지속적인 위안물이 되지는 못했으나, 완전히 이상적인 세계로서 전적으로 Keats의 동경의 대상이 된다: "Ode on a Grecian Urn"에서는 작가가 상상력의 세계에 침잠해 있는 동안에도 그 세계는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세계로 나타나며, 도피하려 했던 불완전한 지상의 삶은 오히려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 세계로 나타난다.

Keats의 관점이 항아리 자체에 모아진 셋째 연에서 Keats는 세 가지의 은유—"bride of quietness", "foster child of silence and slow time", "sylvan historian"—를 이용하여 항아리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느린 시간의 양자"인 항아리는 시간 속의 존재인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대를 누리는 존재로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영원한 이상적인 세계의 상징으로 적합한 것이다; 그리고 항아리 그 자체는 비록 고요하고 말이 없지만 어떤 시인보다도 감미롭게 아름다운 얘기를, 격정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역설적인 존재이다. 이 항아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새겨진 조각의 설명으로 전달된다:

What leaf-fring'd legend haunts about thy shape  
Of deities or mortals, or of both,  
In Tempe or the dales of Arcady?  
What men or gods are these? What maidens loth?  
What mad pursuit? What struggle to escape?  
What pipes and timbrels? What wild ecstasy? (ll. 5-10)

동사보다는 주로 형용사와 명사를 이용한 보사는 동작이 정지된 조각의 형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sup>(15)</sup> 항아리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는 Keats의 모습도 아울러 전달하고 있다.

(14) C. M. Bowra, *op. cit.*, p. 128.

(15) Earl R. Wasserman, *The Finer Tone: Keats' Major Poem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53), p. 18.

항아리의 아름다움에 감동된 Keats는 강한 감정이 자극한 상상력의 힘으로 항아리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Heard melodies are sweet but those unheard  
Are sweeter; therefore, ye soft pipes, play on;  
Not to the sensual ear, but, more endear'd,  
Pipe to the spirit ditties of no tone.... (ll.11-14)

들리는 멜로디보다 들리지 않는 음악, 즉 상상된 음악이 더욱 아름답다는 대담한 역설의 의미는 상상력은 이상적인 음악은 포착한다는 것이다. Keats는 영혼을 향해 “소리 없는 노래(ditties of no tone)”를 연주 하라고 피리에게 권함으로써 상상력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리고 있다. 이 세계에는 지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청년과, 씁쓸나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청년과, 시들지 않는 美를 소유한 애인이 있다. 시간 속의 존재가 권역적으로 경험하는 변화와 죽음이 없는, 지상의 삶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이 세계는 지상의 삶이 지니는 한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Keats의 동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Keats는 동시에 이 세계 역시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영원한 현재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만이 누리게 해주는 경험의 정점에 이를 수 없으며, 변화를 허용치 않기 때문에 존재는 상황의 노예가 될 수 있다. Keats는 이를 피리를 결코 멈출 수 없어 마지옥에 갇힌 죄수처럼 피리에 묶여 있어야 하는 피리부는 청년의 모습과 결코 키스를 할 수 없는 연인들의 경우를 들어 제시한다:

Fair youth, beneath the trees, thou canst not leave  
Thy song, nor ever can those trees be bare;  
Bold lover, never, never canst thou kiss,  
Though winning near the goal. (ll.15-18)

Keats는 상상력을 통해 지상의 삶으로부터 도피했으나 지상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연과 셋째 연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한계성과 가치를 지닌 두 세계의 대립을 보여주는데 특히 셋째 연은 효과적인 구문의 구사로<sup>(16)</sup> 이를 강하게 제시한다:

All breathing human passion far above,  
That leaves a heart high-sorrowful and cloy'd,  
A burning forehead, and a parching tongue. (ll.28-33)

변전을 초월한 세계의 사랑은 경험의 정점 이후 결국은 괴로운 후유증과 변화를 수반하는 지상의 사랑보다 훨씬 가치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환희의 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지상의 사랑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기도 하다.

영원한 현재의 세계와 무상한 삶의 대립은 항아리의 또 다른 조각을 통해서 계속된다. 넷째 연은 둘째, 셋째 연의 디오니소스적인 환희의 순간과는 대조적인 밝은 질서 감각의 아폴로적인 요소의 조각으로 독자를 끌고 간다. Keats는 이 아름다운 조각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또 다시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한계를 느낀다: 시간의 흐름이 없는 세계이므로 제사행림의 출발지였던 마음은 영원히 쓸쓸하고 고요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영원히 쓸쓸한 마음의 이미지는 Keats에게 황량감을 느끼게 하며 “Ode to a Nightingale”에서 “forlorn”이라는 말이 Keats로 하여금 현실로 돌아오게 했듯, 인간적인 것이 결여된 세계의 결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삶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마지막 연은 항아리를 항아리 그 자체로서 인식하는 Keats의 모습을 보인으로써 Keats가 상상력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리며 시작된다. 항아리를 “shape”, “attitude”, “form”, “Cold Pastoral”로 인식하며 생명을 지니고 영원한 사랑과 음악을 즐기던 남녀들이 실인즉 대리석조각에 불과함을 깨달는 것은 모두 Keats의 회복된 현실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Keats는 현실의 항아리가 지상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해 본다. 항아리는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세상에 오래 남을 존재이며, 따라서 “영원” 처럼 순간적인 존재인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는 물체이다: “Thou, silent form,

(16) Harold Bloom, *op. cit.*, pp.417-18.

dost tease us out of thought/As doth eternity". (ll. 44-45) 그러나 형아리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자극하여 Keats 로 하여금 삶과 사물의 궁극적 진리를 파악토록 만들었다: 무상성과 죽음이 라는 지상의 한계가 극복된 세계도 완전한 세계가 아니며, 불완전한 지상의 삶도 나뭇대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Keats 는 지상에 오래 존재할 형아리가 앞으로도 길이 사람들의 친구로서 사람들에게 이 궁극적인 진리를 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이 궁극적 진리가 상상력의 소산이며, 진리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임을 전하리라고 믿는다:

When old age shall this generation waste,  
Thou shalt remain, in midst of other woe  
Than ours, a friend to man, to whom thou say'st,  
"Beauty is truth, turth beauty," —that is all  
Ye know on earth, and ye need to know. (ll. 46-50)

마지막 말은 작가의 말이든, 형아리의 말이든,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중요한 점은 형아리는 상상력의 세계가 붕괴되어도 그 자체로서 현실에서 Keats 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겐 오랫동안 의미있는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형아리처럼 Keats 를 상상력의 세계로 인도했으나 상상력의 세계가 붕괴되자 현실의 Keats 에게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된, 아니 그 존재 자체도 의심받는 위치에 놓였던 나 이팅제일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형아리가 전하는 궁극적 진리는, 그러나, 현실의 삶이 지니는 한계성으로 인해 고쳐하는 Keats 에게 위안을 주고 있지는 않다. 위에 인용된 시의 마지막 부분은 늙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동경하는 세대를 황폐케 하는 유한한 삶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세계와의 좁혀질 수 없는 간격에 대한 Keats 의 인식과 그로인한 고뇌를 전하고 있다.

삶의 고뇌로부터 도피했다가 다시 삶의 고뇌 속으로 돌아오는 "Ode on a Grecian Urn"은 "Ode to a Nightingale"과 마찬가지로 삶의 유한성으로 고쳐하는 Keats 의 모습과, 고쳐하면서도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Keats 는 "Ode to a Nightingale"에서 처럼 영구적인 형아리와는 대조적인 일회적인 삶의 특성으로 인해 고쳐했으며, 이 고쳐가 그로 하여금 상상력을 통한 영원한 세계로의 도피를 시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상의 삶을 중시하여 이를 부정하는 세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삶의 의미파악을 목표로 삼는 그로서는 이 도피에서 결국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는 "Ode to a Nightingale"에서 처럼 현실로 되돌아 올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상상력의 세계에 침잠해 있는 동안에도 지상의 삶과 대조적인 상상력이 구축한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정립시키지 않았다; Keats 는 오히려 지상의 삶이,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해도 나뭇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세계로 제시했다. 앞서도 살펴 보았듯 이 테두리는 형아리가 전해 주는 위안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Keats 의 고뇌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휴메니스트로서의 Keats 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Ode to a Nightingale"보다 더욱 휴메니스트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는 이 작품은 이로 인해 삶의 유한성이 그에게 던지는 고쳐와 갈등을 더 강하게 부각시킨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발견치 못해 고뇌의 순간에는 현재의 한계가 극복된 세계로 성공하지도 못한 도피를 꿈꿀 수 밖에 없는 그는 "Ode to a Nightingale"에서 처럼 격정적인 진술과 감정의 토로를 통해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Ⅴ. "To Autumn"

Keats 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5편의 Ode 중 앞서 고찰한 4편의 Ode 가 모두 1819년의 4월 말과 5월에 쓰여진 반면 "To Autumn"은 그로부터 4개월이라는 시간상의 간격을 두고 9월에 쓰여진 작품이다. 비교적 길이는 짧지만 Keats 의 대표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5편의 Ode 중에서도 비평가들로부터 가장 성숙하고 훌륭하다는 평을 듣는 이 작품은 가을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한 생생하고 아름다운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리듬, 그리고 음(音)을 고려하여 선택한 매우 적절한 어휘와 Ode 형식의 효과적인 구사 등 완벽에 가까운 기교를 통해 전달되는 가을의 묘사는 그러나 단순한 정경의 묘사가 아니다. 이 묘사 속에 주

제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Keats의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

시는 가을에 대한 은유법(apostrophe)으로 시작되며 제 1련은 과일, 꽃, 열매, 꿀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단풍이 결실을 맺고 있는 풍요로운 가을의 모습을 보여준다:

Season of mists and mellow fruitfulness,  
 Close bosom-friend of the maturing sun;  
 Conspiring with him how to load and bless  
 With fruit the vines that round the thatch-eves run;  
 To bend with apples the moss'd cottage-trees,  
 And fill all fruit with ripeness to the core;  
 To swell the gourd, and plump the hazel shells  
 With a sweet kernel; to set budding more,  
 And still more, later flowers for the bees,  
 Until they think warm days will never cease,  
 For summer has o'er-brimm'd their clammy cells.

둘째 련은 의인법을 이용하여 “추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가을은 묘사하며 추수자의 흥만감 넘치는 가을의 모습을 전달한다:

Who hath not seen thee oft amid thy store?  
 Sometimes whoever seeks abroad may find  
 Thee sitting carcless on a granary floor,  
 Thy hair soft-lifted by the winnowing wind;  
 Or on a half-reap'd furrow sound asleep,  
 Drows'd with the fume of poppies, while thy hook  
 S pares the next swath and all its twined flowers;  
 And sometimes like a gleaner thou dost keep  
 Steady thy laden head across a brook;  
 Or by a cyder-press, with patient look,  
 Thou watchest the last oozi ng hours by hours.

Keats는 둘째 련에서 특히 가을의 이미지로 제시되는 “추수하는 사람”의 모습을 추수를 하는 능적인 상태가 아닌 쉬고 있는 모습, 혹은 움직임을 멈춘 정적인 모습으로 제시함으로써<sup>(17)</sup> 가을의 흥만함이 더욱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을 유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첫째, 둘째 련은 지상의 낙원과 같은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To Autumn”이 보여주는 Keats의 놀라운 수법은 이와같은 흥만되고 풍요로운 세계의 묘사 속에, 자신의 주된 관심사이자, 그 초극을 시인으로서의 복부로 삼았던 삶의 일회성이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Keats는 첫째 련의 마지막 3행과 둘째 련의 마지막 2행에 나타난 가을의 이미지를 통해 이 풍요로운 지상의 낙원이 우리 삶의 다른 아름다운 순간들 처럼 영속성을 지닐 수 없는 시간 속의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다. 제 1련의 “late flowers”, “they think warm days will never cease,” 그리고 마지막 행의 이미 지나간 여름에 대한 언급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인식시킨다. 둘째 련에 나타난 가을에 대한 마지막 이미지에서 “oozing”은 “시간의 흐름”의 상징으로서 “last oozi ngs”는 지상의 낙원을 이룩한 가을이 곧 끝나고 한 해의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의인화된 가을이 자이다 암흑기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방울들을 쳐다보는 태도(“with patient look”)는 이 암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연묘사 속에 풍요롭고 흥만감 넘치는 가을의 세계가 영속적인 세계가 되지 못함을 암시함으로써 Keats는 삶이란 어떤 순간의 영속성도 허락하지 않는, 죽음을 필연으로 하는 변전무상한 것이라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파악을 표현하고 있다. “Ode on Melancholy”에서 진술되었으며, “Ode to a Nightingale”과

(17) 제 2련에 등장하는 가을의 모습중 유일한 동적의 묘사인, 추수한 것을 버리에 이고 개울을 건너는 모습 역시 동적 자체의 묘사라기 보다는 동적에 대한 순간적인 포착으로 정적인 느낌을 준다.

“Ode on a Grecian Urn”의 고뇌를 형성시킨, 자신이 조극하고자 했던 비극적인 세계상이 아름다운 가을의 묘사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비극적인 세계관은 마지막 편의 첫 행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얻으며 시의 표현으로 부상한다:

Where are the songs of spring? Ay, where are they?  
 Think not of them, thou hast thy music too,—  
 While barred clouds bloom the soft-dying day,  
 And touch the stubble-plains with rosy hue;  
 Then in a wailful choir the small gnats mourn  
 Among the river shallows, borne aloft  
 Or sinking as the light wind lives or dies;  
 And full-grown lambs loud bleat from hilly bourn;  
 Hedge-crickets sing; and now with treble soft  
 The red-breast whistles from a garden-croft;  
 And gathering swallows twitter in the skies.

1행에서 젊음과 정열의 시기가 지나갔음은 물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거의 다 지나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암시함으로써 Keats는 자신의 평생의 문제였던 삶의 유한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2행 이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1행과 2행은 “To Autumn”의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삶의 유한성이라는 문제가 1련과 2련에서 가을의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대두되었듯, 이 문제에 대한 Keats의 답변 역시 마지막 연에서 객관적인 정경 묘사를 통해 암시된다. 1행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지막 연이 펼쳐 보이는 가을의 정경은 1련의 추수전의 풍요로운 모습이나 2련의 추수기의 흥만감 넘치는 모습과 더불어 가을의 또 다른 전형적인 모습이랄 할 수 있는, 추수도 끝나 그부터기만 남은 고적한 볼판의 모습이다. 시간적으로는 1련의 경오 때와 2련의 오후를 지남 석양 때이다. 이 정경묘사를 통해 Keats는 자신의 목표였던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한다: 유한한 삶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영원히 되풀이되는 우주의 죽음과 삶의 회전의 한 부분으로서 영원한 칼이 아니며, 우주의 이 영원한 회전 속의 매 순간은 모두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죽음은 마지막 연에서 벌파의 그루터기, 석양,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자다귀들과 모여 있는 제비가 암시하는 겨울 등의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 죽음이 영원한 회전의 한 상태에 불과하며 영속적인 현상이 아님을 Keats는 석양을 묘사할 때 봄을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곧 사라지고 발리라는 느낌을 던지는 “bloom”이라는 타동사와 “rosy hue”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낸다. 겨울의 아름다움, 곧 노래에 참여하는 “다 자란 어린 양”들도 같은 역할을 한다. 다 자란 어린 양은 이미 어린 양(lamb)이 아니며 숫양(ram)이나 암양(ewe)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다 자란 어린 양(full-grown lamb)”이라 표현함으로써 Keats는 봄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왔음과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올 것임을 암시한다. 다 자란 어린 양은 또 다시 어린 양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고뇌의 근원인 죽음을 영원히 계속되는 우주의 생명현상의 한 단계로 파악하면 죽음은 또한 삶 의 모든 변화를 수용하며 유한성으로 인한 삶의 고뇌를 초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삶의 무상성의 수용은 필연적으로 삶의 모든 단계와 현상을 수용하며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한다. 죽음의 수용으로 인해 지니게 된, 모든 만물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태도는 마지막 편의 Keats의 묘사에서 잘 나타난다. 비록 젊음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루터기만 남은 벌판도, 그리고 한낮의 해가 기운 석양의 모습도 예전 못지 않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노래를 지니고 있다: 여치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방울새의 부드러운 고음의 노래 소리도 있고 석양빛도 아름답다. 따라서 영원한 현상이 될 수도 없으며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죽음은 그렇게 슬픈 현상이 아니며 이를 피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행할 필요가 없다; 하루는 조용히 죽어갈 수 있으며, Keats로서는 작은 자다귀들이 한 해의 죽음을 서러워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도 가비온 타람을 타고 늦게 불러가기도 하고 낮게 불러가기도 한다고 가벼운 태도로<sup>(18)</sup>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18) Harold Bloom, *op. cit.*, p.435.



Keats가 우리 삶의 유한성과 비극상을 인지한 이후, 상상력의 힘으로 현상의 배우에 숨어 있는 삶의 궁극적인 실체의 의미 파악에 부신했던 이태 Nightingale Ode와 Grecian Urn Ode가 보여주는 고뇌의 순간을 거쳐 “To Autumn”에 이르러 드디어 새로운 초월적인 원리를 포착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편지에서 밝힌, 만물이 모두 아름다움을 지닌다는 원리로, 죽음은 그 자체로서 영원한 끝이 아니며 삶 속의 단계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To Autumn”은 바로 이 세계관의 시적표현인 것이다. 시의 이런 결말은 앞 부분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To Autumn”이 전체적으로 하루 중에서는 저녁 때로, 계절로서는 겨울로, 그리고 가을 중에서는 추수가 끝난 늦가을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이는 Keats의 새로운 세계관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죽음을 끊임없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우주의 영원한 흐름의 한 단계로 파악한 Keats가 그 우주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구사한 훌륭한 수법인 것이다. 제 1련의 개암나무의 묘사시 “달콤한 인(sweet kernel)”을 언급한 것과 열매를 “핵심까지(to the core)” 익게 했다고 한 묘사도 엄밀히 계산되어진 기교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가을이 이미 그 이후에 이어질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음을 밝혀 자신이 상상력을 통해 파악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고뇌의 초극은 기교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Keats가 제재를 다루는 태도에, 따라서 시의 형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eats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삶 자체였으며 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제면에서의 그의 과제였다. 자연 그의 주된 제재는 삶 그 자체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Keats는 시인의 개성과 작가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주관적인 시를 지양하며, 시인이 제재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며 극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비개성적인 시를 쓰고자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이 목표는 삶의 비극성에 대한 우선적인 초극을 필요로 했다: 제재가 삶이므로 비극적인 세계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제재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Ode to a Nightingale”과 “Ode on a Grecian Urn”이 보여주는 고뇌의 분출이 야기한 극화되지 못한 작가의 주장이나 설명은 이를 입증한다. 이제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비극적인 세계상을 극복하게 된 그는 삶을 거리를 두고 다루며 극화된 비개성적인 시를 쓸 수 있게 된다. “To Autumn”은 Keats의 바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To Autumn”에는 “I”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 전혀 시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삶이 던져주는 기쁨이나 아름다움으로 인한 격렬한 환희의 분출도, 삶의 유한성으로 인한 고뇌의 진술도 없다. 이런 감탄부호도 등장하지 않으며 억제되지 못한 시인의 직접적인 개입 — 설명이나 주장같은—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 보았듯, Keats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다루는 제재만이 있을 뿐이다. 시는 전적으로 가을이라는 제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묘사로 가득차 있다. 주제가 되는 그가 파악한 궁극적인 삶의 실체는 결코 Keats의 직접적인 말로 진술되지 않으며 제재의 발전을 통해 극화 되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삶의 수용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이상이었던 드라마의 특성을 지니는 비개성적인 시를 가능케 한 것이다.

기교상 드라마에 접근한 “To Autumn”은 비극적인 세계상과 이를 초극하여 새로운 세계를 제시할 수 있는 초월적인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는 주제상의 특징으로 인해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비극에 접근한 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Bloom의 지적대로<sup>19)</sup> 짧은 서정시를 읽고 나서 마치 비극작품이라도 읽은듯이 비극이 느껴게 해주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된다.

## Ⅶ. 결 어

서론에서 Keats의 편지를 통해 Keats는 인간의 삶을 증시한 휴메니스트로서 주제면에서의 목표를 상상력 운 통한 삶의 궁극적 실체 파악에 두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제재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극화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는 객관적이며 비개성적인 시, 즉 드라마의 특성을 지닌 시를 지향하였음을 고찰했다. 그리고 이 고찰을 토대로, 그의 주제와 형식상의 목표가 모두 이뤄질 때 시는 비극의 특성을 지니게 됨으로

(19) Harold Bloom, *op. cit.*, p. 435.

그의 시는 궁극적으로 비극을 지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Keats의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1819년에 발표된 5편의 Ode는 이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Ode to Psyche"는 Psyche와 Cupid의 신화분 이용하여 Keats가 편지에서 주장한 바 있는 자신의 상상력에 대한 입장을 밝힌 시였다: 감정과의 이상적인 결합이 이뤄질 때 인간의 상상력은 평생 시에 인간의 이성이 파악할 수 없었던 궁극적 진리를 파악하는 힘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Keats의 시적 목표와 연관시켜 볼 때 이 시가 지니는 의미는 그가 이 주장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상상력의 힘으로 삶의 실체를 파악하여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Ode on Melancholy"는 우수한 즐거움과 공존하며 우리가 열심히 살면 실 수룩 느끼는 것이라고 우수의 거처를 밝힘으로써 우리의 삶은 변절무상하다는 비극적인 세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계상은 Keats가 삶과 세계의 실상에 눈을 떠서 인지한 것으로 Keats는 이것의 초극은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목표로 설정했다. "Ode on Melancholy"에서 Keats의 초극의 대상인 비극적인 세계상은 주제가 곧 세계가 될 정도로 명백한 진술을 통해 제시된다.

"Ode to a Nightingale"과 "Ode on a Grecian Urn"은 상상력을 통해 유한한 삶의 고뇌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Keats의 시도를 통해 "Ode on Melancholy"에서 제시된 비극적인 세계상으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도피가 결국은 실패하고 있음을 통해 유한한 삶으로 고뇌하면서도 삶은 무가치한 것으로 느끼하지도 못하는 휴메니스트인 그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Keats는 삶이 인간에게 던지는 고뇌는 파악했으나 아직 이것을 해결할 방책은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의 주제상의 목표가 이뤄지지 않아 삶으로 인한 스스로의 고뇌를 제어할 수 없는 Keats로서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제제가 되는 삶을 다룰 수 없었다. Keats의 경우, 그의 주된 제제가 삶이었으므로 그의 형식상의 목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상의 목표가 성취되어야만 했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시는 그의 고뇌와 감동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진술과 감정의 토로를 통해 전달한다. "Ode on Melancholy"의 주제인 비극적인 세계상이 명백한 진술을 통해 표현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To Autumn"에서 Keats는 드디어 비극적인 세계상을 초극할 수 있는 자신이 파악한 삶의 궁극적인 실체를 제시한다: 죽음은 죽음과 삶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우주의 생명현상의 한 단계로 그 자체로서 영원한 끝이 아니며, 우주의 생명현상 속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Keats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삶에 들어오는 모든 현상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상의 제시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의 주제상의 목표의 실현은 Keats에게 형식상의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했다. 불가해한 삶의 실체를 파악한 그는 자신의 제재인 삶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됨으로 자신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제제의 발견을 통해 주제를 극대화하며 드러내는 비개성적인 시, 곧 그의 이상이었던 드라마의 특성을 지닌 시를 쓰게 된다. 드라마의 특성을 지닌 형식과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하는 주제상의 특질은 결국 "To Autumn"을 비극의 특성을 지닌 시로 만들었다. 이로써 Keats의 시는 그가 설정한 주제의 형식상의 목표를 지향할 때 궁극적으로는 비극을 지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Bibliography

- Abrams, M.H.(ed),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Bate, Walter Jackson(ed), *K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 Bowra, C.M., *The Romantic Imagin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 Brooks, Cleanth,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47.
- D'Avanzo, Mario L., *Keats's Metaphors for the Poetic Imaginat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67.
- Eliot, T.S.,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 Studies in the Relation of Criticism to Poetry in England*,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34.
- Fraser, G.S.(ed), *John Keats: Odes*,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1.
- Gittings, Robert, *John Keats: The Living Year*, London: Mercury Books, 1962.
- Glicksberg, Charles L., *The Tragic Vision i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3.
- Hirst, Wolf Z., *John Keats*, Boston: Twayne Publishers, 1981.
- Keats, J.B., *The Poetical Works of Keats*, ed. Paul D. Sheat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 Krieger, Murray, *The Tragic Vision: The Confrontation of Extrem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0.
- Leech, Clifford, *Tragedy*, London: Methuen & Co. Ltd., 1969.
- Mayhead, Robin, *John Kea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Murry, John Middleton, *Keats and Shakespeare: A Study of Keats's Poetic Life From 1816 to 182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 Murry, John Middleton, *Keats*,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55.
- O'Neill, Judith(ed), *Critics on Keats*, Coral Gables, Florida: University of Miami Press, 1968.
- Perkins, David, *The Quest for Permanence: The Symbolism of Wordsworth, Shelley, and Keat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 Wasserman, Earl R., *The Finer Tone: Keats' Major Poem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53.
- Wilson, Katharine M., *The Nightingale and the Hawk: A Psychological Study of Keats' Od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4.